**바다거북의 산란**

야쿠시마 섬에는 붉은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 두 종류의 바다거북이 상륙합니다. 일본은 북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이 두 종류의 바다거북 가운데 더 많은 붉은바다거북이 산란하러 찾아오는 곳으로서, 야쿠시마 섬의 해변은 붉은바다거북이 산란하는 장소 가운데 가장 큽니다.

왜 바다거북은 야쿠시마 섬을 선호하는가

붉은바다거북의 새끼는 야쿠시마 섬의 해변에서 부화하여 야쿠시마 섬 근해를 거쳐 태평양 북동쪽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회유합니다. 많은 붉은바다거북이 먹이가 풍부한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향하며, 최종적으로는 알을 낳기 위해 야쿠시마 섬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암컷이 교미와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데 비해 수컷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암컷은 5월부터 7월의 산란철에 야쿠시마 섬의 모래사장에 알을 낳습니다. 암컷들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상륙하여 모래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은 다음, 3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 모래로 구멍을 덮습니다. 각 암컷은 한 번에 약 10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으며, 한 산란철에 2~6회 산란합니다. 알은 45일에서 70일 뒤에 부화하며, 몸길이 5cm 정도의 검은 새끼 거북이가 3일에서 7일 뒤에 모래밭에서 나와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거북 보호 활동

바다거북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왔습니다. 1950~60년대까지 거북이는 등딱지로 만드는 장식품 때문에 대량으로 포획되었습니다. 또한 거북이 알은 영양소 함유량이 높고 장수와 순산에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판매되고 먹어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남획과 환경의 악화가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더욱 위협했습니다.

야쿠시마 섬의 북반부를 차지하는 구 가미야쿠초는 바다거북을 멸종에서 보호하기 위해 1973년에 바다거북과 알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 가고시마현은 1988년에 모든 연안 지역에서 바다거북과 알의 불법 포획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나가타하마 해변(나가타에 있는 세 해변의 총칭)이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북태평양에서 가장 많은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가 나가타에 있으며, 이 바다거북의 생존에 중요한 지역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야쿠시마 바다거북관은 야쿠시마 섬 바다거북의 생태 조사와 보호가 목적인 비영리 시설로서, 바다거북의 생태 관찰 및 조사, 해변 청소, 산란한 둥지 순찰 및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그룹과 자원봉사자들이 상륙하는 바다거북의 숫자와 낳은 알 숫자를 수집·감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바다거북에 태그를 붙여 회유 경로를 위성으로 추적하는 등 바다거북의 생태 조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을 만나려면

거북이는 주로 다섯 개 구역에 산란합니다. 나가타의 마에하마 해변과 이나카하마 해변, 잇소 해수욕장, 구리오하마 해변, 그리고 나카마하마 해변입니다. 나가타의 해변은 산란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나가타 이나카하마 해변

야쿠시마 섬 북서부에 있는, 1,000m에 이르는 이 해변은 섬 내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입니다. 야쿠시마 섬은 일본에 상륙하는 붉은바다거북의 40~50%가 상륙하는 곳으로서 그중 90%가 나가타하마 해변에 상륙합니다. 바다거북을 볼 가능성은 5월 중순부터 6월에 걸쳐 가장 높아집니다. 방문자가 바다거북을 보려면 나가타 바다거북 연락협의회가 실시하는 ‘바다거북 관찰회’에 참가해야 하며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야쿠시마 바다거북관

바다거북의 생애 주기를 상세히 설명한 표본과 사진, 또한 패널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일부에 영어 설명 제공)이 연중 공개되고 있습니다(휴관: 매주 월요일, 입장료: 어른 500엔, 중학생 이하 200엔, 초등학생 및 유아 무료).

구리오하마 해변

나가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붉은바다거북의 산란 구역은 야쿠시마 섬 남서부에 있는 이 해변입니다. 구리오에서는 관찰회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해변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바다거북 감시원이 관찰자에게 주의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